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11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읍기 · 시편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장로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11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읍기 · 시편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 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충현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눅 19: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 및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에서 약속된 구세주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죄인들을 위해 슬픔과 고통을 겪으신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감사!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신자들의 심령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9:15)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자녀들에게는
조건과 상황을 뛰어 넘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늘 기억하십시오.

은총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의 세계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2008년 1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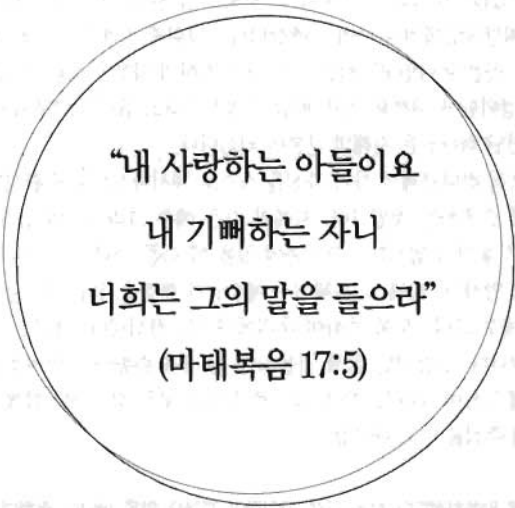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 성경묵상)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5)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나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있는 옴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징벌하시리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옴은 악인과 자신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기 원하는 절대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채광작업에 비유하여 노래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니인고”(20절) 하나님은 지혜의 길을 아십니다.(23절) 그 길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옴이 증언하듯이 고난 중에 옴이 만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심으로써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맙시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교하며 넘어지지 맙시다.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견자고 하십니다. 힘들지만 함께 걸읍시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옴 28:28)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②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총괄적인 변론을 언급한 부분으로서 욥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변영했던 과거를 회상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친밀한 교제에 대한 회고를 언급한 전반부(1~6절)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타냈던 칭송과 존경에 대한 회고를 기록한 중반부(7~17절),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던 자신의 지도자적 위치를 회고한 후반부(18~25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회고에는 그는 빈민이나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지거나, 망하게 된 자 또는 과부 등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조연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욥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나 시간, 건강을 사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단순한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시간, 건강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난 후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 도움을 주고, 섬기고 난 후 “내가 했노라.” 자랑하기 쉬운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자랑하지 않으려한다는 겸손을 핑계하여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숨기며,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하게 해 주실 거야.”라고 핑계하지 맙시다. ‘내 열심’ 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빛으시어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 일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욥 29:2)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멸시받는 욥을 말씀하며(1~15절)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음을 한탄하며(16~23절)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욥의 절망울(24~31절) 고백하지만, 이 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비극이 인간 스스로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도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윽나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20~21절)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간구를 드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아픔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때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이 헤매던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 원망과 탄식을 토로하는 욥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를 배웁시다.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24절) 우리가 펴는 손을 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읍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알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해결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며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욥 30:24)

기도 제목 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자신의 결백을 옴은 맹세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탐욕적인 호색을 부인하는 부분(1~4절), 거짓과 탐심을 부인하는 부분(5~8절), 간음죄 부인(9~12절),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주장(13~15절),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선대(16~23절), 원수와 나그네 선대(24~32절), 죄를 숨기지 않았음을 맹세한 부분(33~34절), 친구들의 기소장을 요구하는 부분(35~40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옴은 스스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박대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로 인하여 지을 수 있는 범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물을 이용해 선행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만족이며 자기 의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지체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 서도록 격려해주며 지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과 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십자가의 은총을 나누며, 그들이 '모든 문제의 답이 십자가'인 것을 고백하도록 기도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채 했다면”(옴 31:19)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변론하게 된 원인과 자신을 소개하는 전반부(1~5절)와 변론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해 비난을 하는 중반부(6~14절), 그리고 변론에 대한 엘리후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후반부(15~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은 오직 죄 때문이라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읍의 고난을 보지만, 엘리후의 등장으로 인과응보가 아닌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새롭고도 적극적인 해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6~14절에서 피상적인 논리에 치우친 세 친구들의 변론을 공박하면서 변론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경을 봉한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에 비유하여 토로합니다. 엘리후는 진리의 빛을 밝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변론에 참여했고, 그러한 책임감 뒤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에 대한 뜨거운 열심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렘 20:9)라고 말한 것과 유사한 심정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심정과 자세가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린 채 인간의 이성만 거대화시키려는 현대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 말씀이 흐려져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며 불붙는 심정이 되어서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열망으로 가득차기 원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읍 32:21)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입술이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으로 욥과 담판을 시도하는 엘리후(1~7절), 욥의 의에 대한 엘리후의 공박(8~12절),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13~18절)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고통당하는 인간(19~22절),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23~28절),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인 인간의 구원(29~33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이 판에 박힌 듯한 종교적 격언이나 경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변론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엘리후 역시 욥의 현실적 괴로움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앞의 세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멸망과 정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큰 은총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엘리후의 확신은, 욥의 세 친구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는 삶 속에 위기가 닥쳐와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반드시 이 고난을 참고 견뎌내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니다. 고난 중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순종을 통하여 더욱 정결하게 십자가의 은총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록 이해할 수 없다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욥 33:30)

기도 제목 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변론의 대상을 욥에게서 지체자들로 바꾼 엘리후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욥의 주장을 논박합니다. 이 분위기는 마치 재판정의 공판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엘리후는 욥을 피고인으로 고소하고 배심원인 지체자들 앞에서 욥의 죄목을 낭독한 후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완전하신 속성을 근거로 그를 유죄로 판결합니다.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12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악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사람의 눈에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지면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욥 34:12)

기도 제목 ①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불의한 현실에 대해 탄식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신앙과 항변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초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8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해 계시며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욥이 말하는 인간의 의모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무용하며 무익할 뿐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9~16절) 욥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현실의 상황을 볼 때, 욥이 아직도 불신앙과 교만의 죄를 회개치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어떠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욥기를 읽으며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수없이 논하였으며 답을 찾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에서도 답이 없었으며, 엘리후 역시 처음에는 답을 말하는 듯 하였으나 욥을 비난하는 것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시며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아닌 것을 고난이라 말하지 마시다. 영원의 세계를 말합시다. 물질의 고난으로 고난의 기준을 삼지 말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십시오. 더 많은 꾀박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기꺼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는 길을 함께 걸읍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으며 복음을 증언하며 당하는 고난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욥 35:13)

기도 제목 ①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강박한 마음을 보며 회개케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방관자가 없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5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공의로운 섭리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6절) 엘리후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세 친구의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 부지중에 범한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징계가 욥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10~16절) 고난 속에 극도의 고통으로 인하여 죽기를 소원했던 욥의 탄식(20절, 6:9, 7:15, 14:13)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모습도 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탄식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붙들고 되씹곤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때 고난 당하는 자가 드러야 할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24~33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귀하게 허락된 은총이며 천국에서는 찬양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하도록 이같은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욥 36:15)

기도 제목 ①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② 교사 양성부 및 찬양대원 양성부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병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들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구구한 변명이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자연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번개는 하나님의 징계의 무기요 천둥은 하나님의 엄위한 음성입니다.(2~5절) 뇌성과 번개뿐만 아니라 눈, 비, 바람, 얼음, 구름 등 모든 자연현상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큰 구름을 징벌이나 긍휼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는 농작물을 망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농작물을 성장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다스리시고 번개를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구름을 하늘에 떠 있게 하시고 날씨를 따뜻하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15~17절)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지혜는 기묘한 자연현상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원합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욥 37:16)

기도 제목 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천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이 기다린 고난의 의미와 악인의 번영에 대한 답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고소와 논쟁(16:21, 31:35)에 대한 판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욥은 여러 차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변론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한 마디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변론하기 위해 변론의 자리로 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외의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스스로를 지체 있다고 여기며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이치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한 수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계시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욥 38: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 그 자체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주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 음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들짐승들의 세계로 욥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적 섭리와 전능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전장에서는 천지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광대하신 위엄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이 장에서는 야생동물들 하나 하나까지도 일일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으며 그것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짐승들의 이름과 모습, 생태 등을 언급하시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알려 주십니다.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적이 있느냐”(1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5절) 그동안 자신들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면서 변론했던 욥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9장 전체 질문들 중 몇 가지는 현대 과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생명과정을 창조할 수도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인본주의 사고에 분명한 한계를 가르치며 이 세상의 자연현상이나 생태계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으며 욥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은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허탄한 자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얕아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망각한 채 우리 자신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욥 39:6)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매일 찬양하며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도록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동안 옴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옴 자신이 입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온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4절) 옴은 이렇게 말하고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감히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입장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옴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무척이나 소원했었지만, 자신의 미천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전혀 없음이 알게 된 것입니다.(3~5절) 하지만 철저한 회개와 복종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옴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채 하나님이 의로운 자신을 부당하게 방치하신다는 불만을 심중에 품고 있습니다.(10~14절)

입으로는 침묵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의를 고집하는 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만은 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뜻이 주장되고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은밀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교만은 외식과 도덕으로 포장되어 나타나기에 심각한 영적 위험은 초래합니다.(마 23:25~28)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히 싫어하시고 대적하시기까지 하십니다.(렐전 5: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빌 2:6~8)

“너의 넘치는 노를 배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옴 40:1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단기선교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도 능히 당할 수 없는 전능자요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어의 용맹성, 포악성, 위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특히 악어의 위력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33~34절), 이러한 표현은 그토록 엄청난 위력을 지닌 악어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항변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던 교만한 욥에게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는 표면적으로는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지만, 욥의 고난과 다양한 변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기는 한 개인의 고난에 국한되기 보다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받으실 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히 5:8~10)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값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옴 41:1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욕의 회개입니다. (6절) 욕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으며(9:2~4)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질적인 인간의 원죄의 성향이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자체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욕은 경건함과 선행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까닭 모를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았으며, 그로 인한 죄의 고백과 구속주의 은총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처한 자신의 상황과 생명을 앞에 두고 철저한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체험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5절) 하는 간증을 하게 합니다.

욕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선물이었음을 욕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원죄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욕이 시련의 영광로를 지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의문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뵈옵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회개의 눈물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욕이 회복되기까지 욕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진실한 회개가 있는 은총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욕 42:6)

기도 제목 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시편 전체의 서시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과 악인을 대조한 굳은 신앙은 시편 전반에 흐르는 시인의 일관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선과 악,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에 관해 의인의 길(1~3절)과 악인의 길(4~5절)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의 대비를 통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3절)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에 대한 인간의 고백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한 선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마 5:3~12)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여”(2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계속적으로 말씀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며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길,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걸으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참 행복이며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 1:2)

기도 제목 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② 범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십자가의 은총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어진 예언, 곧 '다윗 언약'의 내용(삼하 7:8~16)을 함축하고 있는 이 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메시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메시아는 세상 권력자들의 대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할 것이며(1~6절) 하나님은 메시아를 더욱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7~9절) 그러므로 인간이 메시아를 환영하고 복종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10~12절) "기름 부음 받은 자"(2절)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9절)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이며,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습니다.(계 2:27, 12:5, 19:15)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은 완악하여 회개할 줄 모르며 예수님을 믿을 줄도 모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1~2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11절, 예수님은 "우리의 왕"(6절)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기름 부음 받은 자)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실천이요,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시 2:1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 기도회의 마가복음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부어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극한 위기에 처한 자신의 비통한 심정과 절망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많은 사람들의 반란은 다윗에게 깊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의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기는 쉽지만 갑자기 닥쳐온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합니다.(7~8절)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을 따라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가셨고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실패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시 3:8)

기도 제목 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 대한 경고(1~5절)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6~8절)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본질적인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가 급박히 추격하여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이니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있습니다. 절박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 기쁨과 행복은 물질이나 명예,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소욕을 좇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시 4:7)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소서. ② 수요성경공부를 통하여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매일 아침 행한 첫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라는 것입니다.(3절)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라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얼마나 복되고 지혜로운 하루의 시작인지요!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바램을 내어놓고, 그날 해야 할 일을 의논하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기대 속에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으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부당한 행위와 해악에 대하여 자신의 아침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1~3절) 자신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지만 악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4~7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 받기를 간구하고 있으며(8~10절) 더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주님의 보호로 영원히 주를 즐거워합니다.(11~12절)

하나님께 고든 것을 맡기고 경배하는 자만이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고통당하던 영혼이 회복되어 주의 보호로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 5:12)

기도 제목 ①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서는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24절) 주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써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형벌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돈과 명예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기준을 죄 사함에 두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2) 죄 사함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 받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함 받는다는 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눅 5:20)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벳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17절) 누가는 분명히 제자와 사방으로부터 온 백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눅 6:46)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1~10절)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7장부터 전개되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앞으로 자신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20절)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가장 분명한 답변을 주신 이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시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막 1:9~11)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였으나 메시아 구원의 본질에 대하여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이시냐고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 길을 준비하리라”(27절, 말 3:1)는 구약을 들어 세례 요한에 의한 구약의 종결과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구원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속에 감추어 있으며, 구약은 신약 속에 열려져 있음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총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는”(38절)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증언하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눅 7:50)

기도 제목 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일(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해 주시자 일생동안 예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지켜 보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을 말씀합니다.(3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의 선교사역 배후에는 이와 같은 여인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음을 밝혀줍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52절)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비웃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알려 주시기 위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음을 입는 사건을 서술하는 누가는 “우리가 밀려들더라”(42절)로 시작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제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무리 속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 가에 손을 대는 여인의 믿음은 비웃음을 하던 부리, 예수님이 떠나사기를 구하던 부리들(36~37절)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헌신적인 여인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아이로의 딸, 혈루병 앓는 여인과 무리들의 믿음 중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눅 8:5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새벽을 깨우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보혈의 은총을 덧입혀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어 제자들에게 복음의 일꾼이 될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신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는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신 십자가의 수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쳤습니다.(1~6절)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10~17절) 이렇게 흥분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단어가 익숙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들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십니까?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실망, 질병, 죽음, 가난 등과 같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통이나 슬픔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섬기고 증언하는데 있어서 고난 받음, 인내, 그리고 자기 부인과 순종의 결과로 받는 조롱, 폄박,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총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칠십인의 전도대를 세우신 일은 열두 사도를 파송한 사건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사도들만이 아닌 다른 제자들까지 복음 전도자로 세우심으로 천국 복음을 점차로 확장시키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급한 일인지를 알게 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묻는 저의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의 위선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대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였던 마르다의 섬김의 잘못된 동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목말라 하였던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38~42절) 교회를 섬기며, 일에 분주하여 마음과 시간을 빼앗긴 채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와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심령들을 향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복음과 십자가를 증언해야 합니다. 칠십인을 세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복음 증언하는 생명의 길을 같이 걸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눅 10:12)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천국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불의한 재판과 비유를 연상시키는(18:1~8)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간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훈련받은 우리의 심령은 기도하며 간구하기가 죄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닌가, 순종하지 못하며 내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해도 늘 불편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10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건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13절) 말씀까지 읽어 내려가면, 성령을 주신다는 결론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에 대한 응답”이기에 실망하고 말게 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기도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피할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의 세계를 간구하지 못하고, 순종의 삶을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은 늘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솔직해집시다. 목사님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 친구도 이웃도 모르지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옆드립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통스러운 모습 그대로 애원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구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 맡기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눅 1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자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1절)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려든 까닭은 육신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였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이면만을 보았지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자 이들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르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고 맙니다.(23:21,23)

전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 말씀하신 질책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의 적대감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그들로부터 수난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가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분노에 의한 핍박이 예상되는 점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8~9절) 한 부자의 비유(13~34절),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35~40절),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49~53절), 시대를 분간할 줄 알라(54~55절)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핍박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56절)는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회개합시다. “청지기가 누구냐”(42절)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인 외식과 같은 우리의 삶이 은총의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눅 12: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위에 더욱 견고히 서서 천국일꾼을 양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고 하십니다.(1~3절)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하려다가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였으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음을 당한 끔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은 불의의 재난을 죄의 형벌이라고 보았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갈릴리인이 다른 갈릴리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며,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을 배우라고 가르치십니다.(4~5절)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회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죽은 행실(히 6:1), 우상숭배(살전 1:9), 각양 더러운 악(고후 12:21), 자기의 허물(시 32:5)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행 2:38) 회개의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성만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죄악성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영혼구원의 열심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나라는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여 자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죄인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부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보다 멸시받는 죄인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이들은 창기나 세리,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따돌림 당하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잔치이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주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1절)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계속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삶 속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27절) 여기서 “지다”에 해당하는 뜻은 요한복음 19:17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하며 당시에 죄수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자신이 져야 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몸소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갑시다.

“.....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눅 14:21)

기도 제목 ① 천국잔치에 초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23개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11월 구역교재 초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서 약속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총을 깨달은 참 신자는 구속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난 신자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항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1031	행 20:7~12	드로아에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1107	행 13:36~41	바울의 설교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1114	시 97:1~6	누가 다스리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라
1121	빌 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128	고후 9:15	감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드로아에서

| 초 점 |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 찬 송 |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사도행전 20:7~12

^㉑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㉒우리가 모인 횃다락에 많이 컸는데 ^㉓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㉔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㉕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㉖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초대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 날은 주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기적인 예배일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주일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드로아에서 일어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행 20:7~12)

바울은 예수님을 특별히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유두고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 지난 성찬주일(9월 7일) 메시지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 성찬식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성찬식은 예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한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기념해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 1:14 / 말씀이 육신이 되어 _____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탄생과 생애, 죽음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 고린도전서 15:3~4을 써 보신 뒤 이 말씀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성찬식은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희생은 성경을 성취했고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행 20:7

예수님은 슬픔을 겪으신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슬픔을 겪으신 구세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 53:3 / 그는 □□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를 많이 겪었으며 □□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히 13:12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주님은 모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제자였던 유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사 53:4 / 그는 실로 우리의 □□를 지고 우리의 □□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여전히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활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벧전 2:21 /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_____ 너희에게 본을 끼쳐 _____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신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신 구세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 53:5 / 그가 찔림은 우리의 □□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정없이 나중에 추가시킨 계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이셨습니다.

막 10:45

딤후 2:6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 53:6

고후 5:21

성찬식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유두고는 졸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성찬식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진실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고전 11:23~26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전 11:27)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위험합니다.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깨어 준비하십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2. 영적 잠에서 깨어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2과 바울의 설교

| 초 점 |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 찬 송 |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 본 문 | 사도행전 13:36~41

⁽³⁶⁾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³⁷⁾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³⁸⁾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³⁹⁾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⁴⁰⁾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⁴¹⁾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뒤 바울은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지중해 연안과 그 근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각 도시의 회당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여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버가 지방의 소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무르는 동안 바울은 그곳의 회당에서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 사도행전 13:17~19 _____
- 사도행전 13:20~23 _____
- 사도행전 13:24~35 _____

바울의 설교에는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 복음설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설교내용과 그 이유를 나누어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설교 중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행 13:36~38

현재 전 세계의 교회는 죄 사함과 회개보다는 축복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롬 3:23

롬 3:10

예배드릴 때 죄 사함에 관한 설교는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 64:6 / 무릇 우리는 _____ 우리의 의는 _____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사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스스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21세기 교회는 죄 사함의 필요성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또한 21세기 성도들은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바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의 유익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행 13:39 /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_____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_____을 얻는 이것이라

※ '칭의'(Justification)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롬 8:30)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은택들은 의롭다 함을 입은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구원과 칭의의 은택들은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고전 6:9~11)

롬 5:1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롬 5:9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롬 8:1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롬 8:33~3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갈 2:16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갈 3:11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교인들의 기분을 맞추기에 급급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교회가 진정 소중한 교회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자

바울은 의심하지 말고 믿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행 13:40~41

※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더 큰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3:36 / 아들을 에게는 이 있고 아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롬 2:5

합 1:5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_____ 너
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의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영적 잠에 빠지게 합니다. 이성과 지성, 현대과학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는 악한 영들의 온갖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하며 복음에 반응했습니다.(행 13:42~44)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행 13:45)

※ 복음을 들은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벧전 2:8

지금, 여러분의 반응은 중요하면서도 위험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진정한 축복과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천국과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추수 감사주일이 되기 전에 마음을 열어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2. 모든 의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로 충만하게 하소서
3. 영혼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과 누가 다스리는가?

| 초 점 |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라

| 찬 송 |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본 문 | 시편 97:1~6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㉕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데도 ㉖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㉗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㉘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써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가치한 세상의 것들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아, 질병, 환경오염, 전쟁, 테러, 폭력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주위를 진치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의 상실, 이혼, 마약, 질병, 분노, 미움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삶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남아있습니까?
-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 희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1절)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은 삶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심을 누릴 수 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여러분은 쉴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벧전 5:6~9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옷, 자신의 차, 자신의 은행계좌, 자신의 집 등등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럴수록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이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고후 5:7

※ 마태복음 11:28~30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지금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기뻐할 수 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롬 8:28~30

여러분은 이 땅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 다음의 말씀이 증언하는 말세의 징조를 정리해 보십시오.

- 마태복음 24:29~31 _____
- 디모데후서 3:1 _____
- 디모데후서 3:5~7 _____
- 누가복음 21:25~28 _____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흥분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십시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라

주께서 다스리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을 써 보십시오

- 이스라엘 백성 _____
- 다윗 _____
- 초대 교회의 성도 _____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 53:3

마 27:30~31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메시지가 입증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롬 1:4~6

※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시 97:2~6 / 구름과 흑암이 그를 _____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_____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_____

계 19: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만유의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게 하소서
2.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경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을 주소서

4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초점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찬송 |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 본문 | 빌립보서 4:4~7

⁴⁴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⁴⁵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⁴⁶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⁴⁷그리하면 모

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황량하게 만듭니다.

빌 4:4~5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구원, 천국, 영생에 집중하기로 생각을 단순히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의 행복지수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기초한 생각이 참 행복을 결정합니다.(요 14:3)

빌 4:6~7

※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갖으려면 신령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감사의 사람은 위를 바라본다

감사의 사람은 위를 바라봅니다.

요 16:3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 ☐에서 ☐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을 당하나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인생의 폭풍은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원망하거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히 12:2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_____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3:1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고난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현재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감사의 사람은 주위를 바라본다

감사의 사람은 주위를 바라봅니다.

시 103:2~5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하시고 □□와 □□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 하시는도다

감사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합니다.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은택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딤후 4:4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믿음을 통한 구원, 기도, 성경을 주신 것, 죄 사함 등 이 모든 은택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감각 즉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사를 드리십시오!

살전 5:18

※ 현재 나의 감사를 5가지만 써 보십시오.

감사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본다

감사의 사람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요일 3:2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_____
_____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을 아는 것은 _____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최상의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요일 3:24 / 그의 _____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
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_____ 우리가 아느니라

빌 3:20

감사는 최악이 아닌 최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해줍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재림과 미래에 가게 될 여러분의 본향을 기대하십시오.

※ 감사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골 4:2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를 참 기쁨으로 감사하게 합니다. 이 세상 이 주는 잠깐의 웃음과 유익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현실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위, 주위, 미래를 바라는 영적 눈을 뜨십시오.

엡 1:18

시 119:37

주 안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 두려움과 평안 중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매순간, 매초,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2.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5과 감사의 마음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 찬 송 |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 본 문 | 고린도후서 9: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집안을 꾸밀 생각에 들떠서 행복해할 지도 모릅니다. 반면 떠들썩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 현재 나의 기쁨과 근심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바울이 처한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그의 앞에는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외쳤습니다.

고후 9:15

※ 내가 드리는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바울은 성탄의 기적 속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적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누가 감사하고 있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한 사람은 평생 동안 가장 위대한 선교사역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행 9:4~5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의 기적을 생각할 때 바울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살전 5:16~18 / 항상 ☐☐하라 쉬지 말고 ☐☐하라 범사에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의 ☐이나라

행 16:24~25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세상을 향한 달음박질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 께만 집중하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무엇이 놀라운 선물인가?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영생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롬 6:23 / 죄의 □은 □□이요 하나님의 □□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단지 크리스마스라는 것 때문에 흥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이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바울이 이 선물에 대해 형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롬 8:32

마 1:21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선물을 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 지금까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을 비교한다면?

누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가?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 3:16 / 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지 않고 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우리에게 죄 사함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허락해 줍니다. 이 선물은 말구유를 감내했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겸손하고 초라하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 하나님의 선물을 대했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지만 이 놀라운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롬 5:18

롬 14:23 / 의심하고 먹는 자는 되었나니 이는 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니라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은총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뿐이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공, 음식, 가족, 집, 옷, 건강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선물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롬 7:25

골 3:17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십시오. 구속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2.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탄의 기적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¹⁾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²⁾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³⁾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⁵⁾ 산들이 여호와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⁶⁾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시편 97:1~6)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가치한 세상 것들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아, 질병, 환경오염, 전쟁, 테러, 폭력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주위를 진치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의 상실, 이혼, 마약, 질병, 분노, 미움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희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1절) 이 말씀을 듣고 힘이 생깁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안겨 줍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은 삶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심을 누릴 수 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여러분은 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알 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6~9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

난을 당하는 줄을 얹이라”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 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이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라”(고후 5:7)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옷, 자신의 차, 자신의 은행계좌, 자신의 집 등등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럴수록 사회는 점점 더 악화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여러분의 영혼은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긴장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만약 늘 걱정이 많고, 불안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만의 지식으로 톨톨 뭉쳐있고, 부를 추구하며, 명성을 얻는 데 분주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며 그로 인해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기뻐할 수 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29~31)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흥분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딤후 3:1) 이 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딤후 3:5~7) 이들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25~28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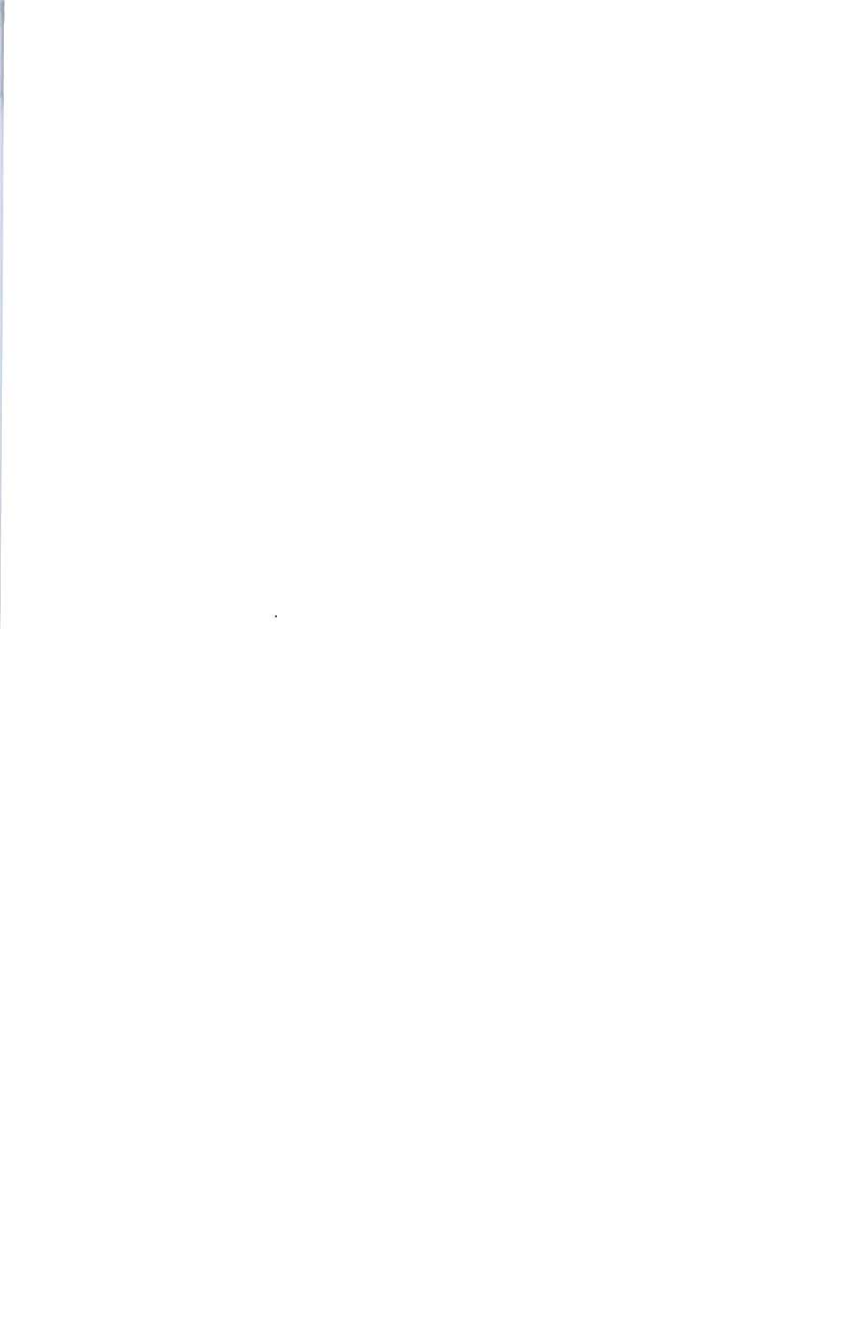
여러분은 이 계획에 참여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으로 가는 길 대신에 멸망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십니까? 로마서 8:28~30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라

주께서 다스리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했고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무시무시한 핍박 뿐 아니라 순교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사 53:3) 예수님은 매를 맞고 못 박히셨으며 창에 찔리셨습니다.(마 27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메시지가 입증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 1:4~6) 구세주가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을 보십시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2~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만유의 주께 맡기십시오. 누가 다스리십니까? 겸손해지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11월

Copyright© 2008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